

경기도 여성 인구구조 및 고용률 변화와 시사점

요약

- 여성 인구구조 및 고용률 변화에 대한 탐색을 위해 2016년과 2025년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경기도 15~54세 여성의 인구구조는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미혼 여성 인구의 증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인구의 감소를 특징으로 재편되고 있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자녀 가구가 증가하였고, 40대에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의 상승, 저출산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여성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 고용률의 상승은 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30대 중심의 경력단절 구간이 완화되고 일부 40대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3~40대 기혼 미성년 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집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음
- 경기도 여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산업 분포는 최근 10년 사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며 산업구조 및 직종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종사상 지위에서도 상용근로자 비중은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변화된 인구구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자녀 연령별 지원 체계 구축,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일자리 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1 서론

가. 배경 및 목적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근 고령화 시대,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임. 특히 결혼, 출산, 육아의 영향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기혼 여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7.3%였으며,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은 64.3%로¹, 관련 통계가 별도 수집된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0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혼인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증가 폭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차이가 있어 세부 분석이 필요함(김지연, 2023; 정성미, 2025)²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가 실시된 지 10년 차가 된 시점에서 2016년 자료와의 비교 분석 및 경기도 여성 인구 및 고용률 변화 특성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음. 2025년 상반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6년 대비 변화와 경기도 여성 인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나. 분석 자료 및 개요

- 분석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2016년과 2025년 자료
- 자료 특성: 2016년부터 여성들의 혼인 및 자녀 여부, 막내 자녀 연령 등의 정보가 추가되어 여성들에 대한 세부 통계 분석이 가능
- 분석 개요:
 - (대상) 전국 및 경기도 여성 15~54세 여성
 - (내용) 15~54세 여성 인구 구조,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 등 기혼 여성의 가족 구성, 고용률, 일자리 특성
 - *고용률 산식: (취업자 수)/(해당 인구수) X 100
 - (방법)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활용, 2016년, 2025년 통계, 전국 및 경기도 자료 비교 분석

15~54세 여성			
A. 미혼여성 ³	B. 기혼여성		
	B-1. 기혼 무자녀 (비동거 포함)	B-2. 기혼 성인 자녀 (18세 이상 자녀 동거)	B-3. 기혼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 자녀 동거)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막내 자녀 나이
			6세이하
			7~12세이하
			13~17세 이하

* 혼인 여부 및 자녀 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해, 미혼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¹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11.20.)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² 김지연, (2023).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KDI 현안 분석, 2023 하반기.
 정성미, (2025). 최근 여성노동시장 주요 특징 및 시사점. KWDI 이슈페이퍼 2025. 10월.

2 경기도 15~54세 여성 인구구조 및 특성 변화

1) 혼인상태 및 자녀여부별 인구구조 변화

- 지난 2016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 대상 여성 15~54세 인구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총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에서도 혼인 및 자녀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미혼과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수가 증가한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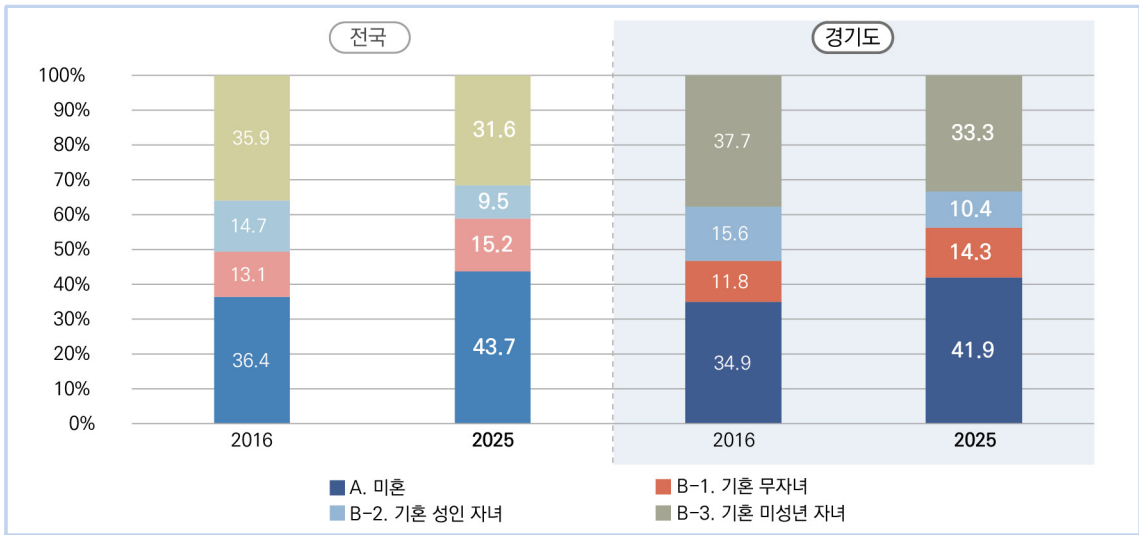
표 1 여성 15~54세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변화(증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A. 미혼	5,358,191	36.4	5,749,736	43.7	391,545	7.3
	B-1. 기혼 무자녀	1,923,102	13.1	1,998,964	15.2	75,861	2.1
	B-2. 기혼 성인 자녀	2,161,377	14.7	1,254,101	9.5	-907,276	-5.1
	B-3. 기혼 미성년 자녀	5,291,155	35.9	4,149,714	31.6	-1,141,441	-4.4
	총계	14,733,826	100	13,152,515	100	-1,581,311	-
경기도	A. 미혼	1,311,343	34.9	1,554,403	41.9	243,060	7.0
	B-1. 기혼 무자녀	443,722	11.8	531,554	14.3	87,832	2.5
	B-2. 기혼 성인 자녀	583,820	15.6	384,955	10.4	-198,865	-5.2
	B-3. 기혼 미성년 자녀	1,415,520	37.7	1,234,746	33.3	-180,774	-4.4
	총계	3,754,404	100	3,705,658	100	-48,746	-

- 2016년과 2025년 15~54세 전체 여성을 100을 기준으로 혼인 및 자녀 여부에 따라 여성 인구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미혼 여성이 전국 기준 36.4%에서 43.7%, 경기도는 34.9%에서 41.9%로 전반적으로 미혼 여성 비중이 높아졌음
 - 기혼 여성 중에서도 자녀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구성이 전국 기준 2016년 13.1%에서 15.2%로, 경기도 기준 11.8%에서 14.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전국 기준 전체 58.9%, 경기도 기준 56.2%로 15~54세 여성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의 비중은 전국(35.9% → 31.6%)과 경기도(37.7% → 33.3%)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15~54세 여성 인구 구성 변화



■ 세부적으로 기혼 여성 중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 특성에 따라 2016년과 2025년 인구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세 이하, 13~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수가 전국이나 경기도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7~12세 이하 초등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소폭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저출산 영향과도 관련된 것으로, 2020년 이후 추가 자녀 출산 가정 수는 줄어들고, 2010년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추가 자녀 출산 없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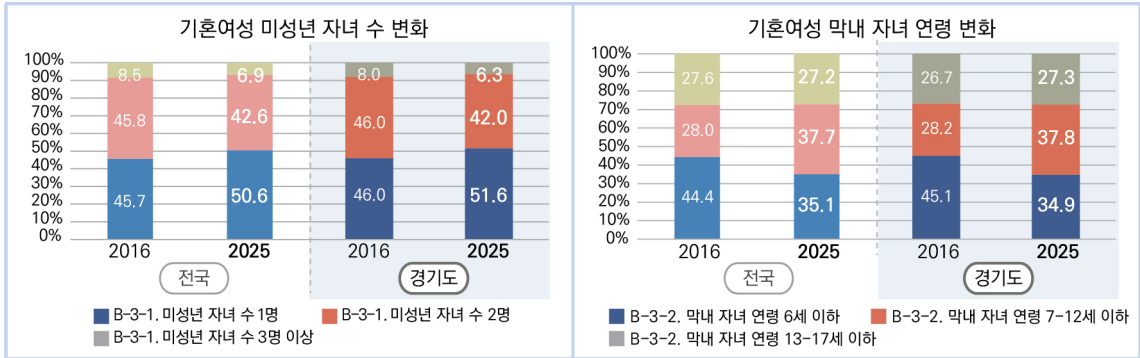
표 2 미성년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 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변화(증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미성년 자녀 수	1명	2,416,713	45.7	2,097,899	50.6	-318,814	4.9
		2명	2,425,797	45.8	1,767,146	42.6	-658,652	-3.3
		3명 이상	448,645	8.5	284,669	6.9	-163,976	-1.6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2,348,960	44.4	1,456,027	35.1	-892,934	-9.3
		7~12세 이하	1,481,147	28.0	1,566,346	37.7	85,199	9.8
		13~17세 이하	1,461,048	27.6	1,127,341	27.2	-333,707	-0.4
경기도	미성년 자녀 수	1명	650,622	46.0	637,268	51.6	-13,354	5.6
		2명	651,767	46.0	519,155	42.0	-132,612	-4.0
		3명 이상	113,131	8.0	78,323	6.3	-34,808	-1.6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637,759	45.1	430,539	34.9	-207,220	-10.2
		7~12세 이하	399,316	28.2	466,738	37.8	67,422	9.6
		13~17세 이하	378,444	26.7	337,469	27.3	-40,975	0.6

- 기혼 여성의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른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의 구성비는 증가한 반면, 2명이나 3명 이상인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국과 경기도 모두 6세 이하인 경우가 10%p 안팎으로 감소한 반면, 7~12세 이하인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기혼여성 미성년 자녀 수 변화 및 막내 자녀 연령 변화



- 전반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국·경기도 모두 15~54세 여성 중 미혼 여성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기혼 여성 중에서도 무자녀 여성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인구수는 감소하였고, 자녀 수가 2명 이상이거나,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여성 인구수는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저출산 및 평균 자녀 수의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

(1) 연령대별 구성 변화

- 다음으로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0세 미만의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50세 ~54세 인구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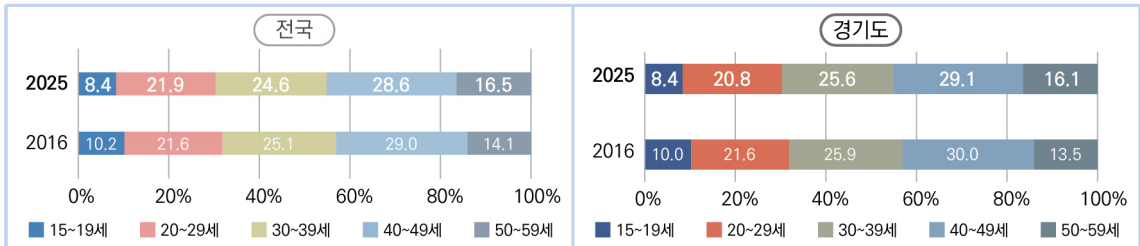
표 3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연령	2016		2025		변화(증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15~19세	1,506,942	10.2	1,101,671	8.4	-405,271	-1.9
	20~29세	3,187,964	21.6	2,886,172	21.9	-301,793	0.3
	30~39세	3,693,812	25.1	3,233,628	24.6	-460,184	-0.5
	40~49세	4,274,252	29.0	3,766,363	28.6	-507,889	-0.4
	50~54세	2,070,855	14.1	2,164,681	16.5	93,826	2.4
경기도	15~19세	376,857	10.0	312,985	8.4	-63,872	-1.6
	20~29세	773,812	20.6	770,640	20.8	-3,172	0.2
	30~39세	973,122	25.9	946,887	25.6	-26,235	-0.4
	40~49세	1,124,725	30.0	1,077,352	29.1	-47,373	-0.9
	50~54세	505,888	13.5	597,794	16.1	91,906	2.7

■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인구 또한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30대 이상 분포 비중이 소폭 높아 해당 연령대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15~54세 여성 연령대별 구성 변화



(2) 연령대별 심층 분석(연령대 * 혼인 및 자녀 수별 구성 변화)

■ 다음으로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및 저출산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연령대인 3~40대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혼인 여부 및 자녀 유형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실제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3~40대 모두 미혼 여성의 인구수는 증가했으며, 30대의 경우 기혼 무자녀 여성의 인구도 증가하였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인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30대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40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기혼 미성년 자녀 여성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는 소폭 증가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기도 지역 인구 이동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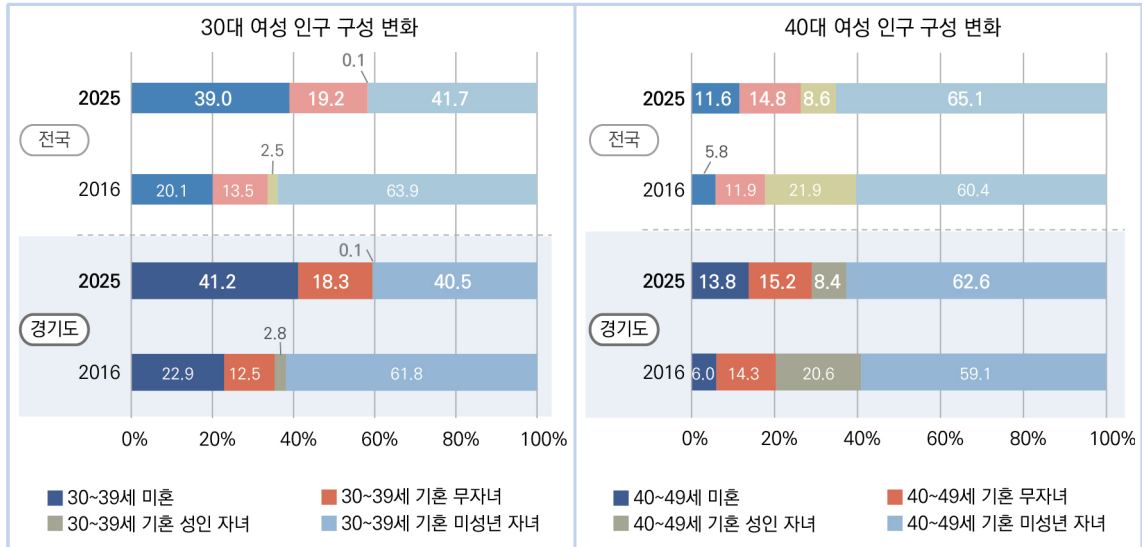
표 4 여성 30대, 40대 혼인 상태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변화(증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30~39세	A. 미혼	846,207	22.9	1,331,532	41.2	485,325	18.3
		B-1. 기혼 무자녀	460,119	12.5	590,975	18.3	130,856	5.8
		B-2. 기혼 성인 자녀	104,234	2.8	2,493	0.1	-101,742	-2.7
		B-3. 기혼 미성년 자녀	2,283,253	61.8	1,308,629	40.5	-974,624	-21.3
		전체	3,693,812	100.0	3,233,628	100.0	-460,184	0.0
	40~49세	A. 미혼	257,257	6.0	519,034	13.8	261,777	7.8
		B-1. 기혼 무자녀	612,709	14.3	572,637	15.2	-40,071	0.9
		B-2. 기혼 성인 자녀	878,419	20.6	317,029	8.4	-561,390	-12.1
		B-3. 기혼 미성년 자녀	2,525,868	59.1	2,357,663	62.6	-168,205	3.5
		전체	4,274,252	100.0	3,766,363	100.0	-507,889	0.0
경기도	30~39세	A. 미혼	195,421	20.1	369,459	39.0	174,038	18.9
		B-1. 기혼 무자녀	131,745	13.5	181,938	19.2	50,193	5.7
		B-2. 기혼 성인 자녀	24,570	2.5	883	0.1	-23,686	-2.4
		B-3. 기혼 미성년 자녀	621,387	63.9	394,607	41.7	-226,780	-22.2
		전체	973,122	100.0	946,887	100.0	-26,235	0.0
	40~49세	A. 미혼	65,461	5.8	124,661	11.6	59,199	5.8
		B-1. 기혼 무자녀	134,195	11.9	158,923	14.8	24,728	2.8
		B-2. 기혼 성인 자녀	246,179	21.9	92,251	8.6	-153,928	-13.3
		B-3. 기혼 미성년 자녀	678,889	60.4	701,517	65.1	22,628	4.8
		전체	1,124,725	100.0	1,077,352	100.0	-47,37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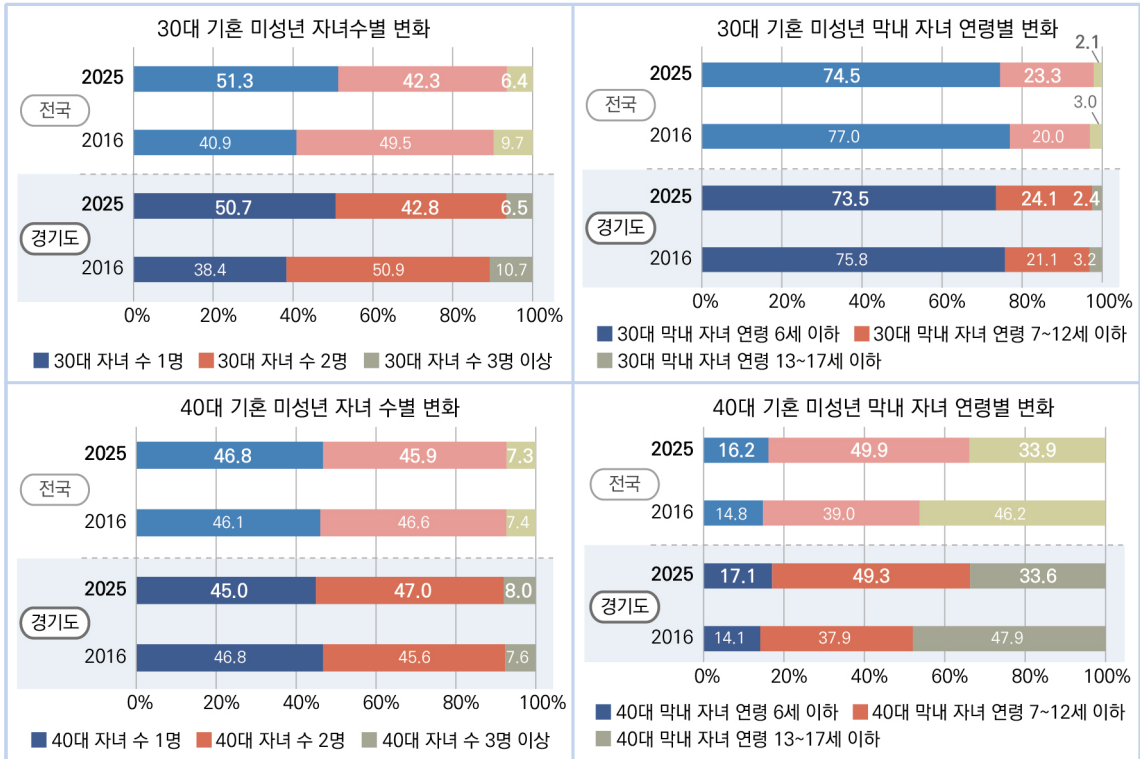
- 다음으로 인구 구성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수 변화와 마찬가지로 3~40대 모두 미혼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30대는 2016년 미혼 비중이 20%대에서 40% 전후로 증가하였고, 4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보다 기혼 비중이 높지만, 2016년 대비 미혼 비중이 10%대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4 30~40대 여성 인구구성 변화



- 30대에서는 기혼 무자녀 여성 비중도 증가하여, 2025년 전국 58.2%, 경기도 59.5%가 미혼이나 기혼 무자녀 여성으로 나타났음. 반면 30대 기혼 미성년 유자녀 여성은 2016년 60% 이상에서 40%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40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기혼 미성년 유자녀 집단으로 60% 정도가 해당함. 특히 경기도의 경우 40대 기혼 미성년 자녀 여성 인구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감소하여, 만혼 및 늦은 출산 등의 영향으로 40대 기혼 여성의 자녀 연령대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3~4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분포 특성 분석 결과, 30대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해당 규모 자체가 2016년 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자녀 수별 구성에 있어서도 1자녀인 경우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고, 2자녀 이상은 비중이 줄어든 상황. 또한 막내 자녀 연령 기준으로 6세 이하의 경우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7~12세 이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추가 자녀의 출산 없이 자녀 하나를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즉 30대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여성의 수도 감소하였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1명만 낳고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40대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수도 소폭 증가한 가운데, 2자녀 이상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6세 이하 및 초등 학령기 막내 자녀가 있는 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양육 자녀의 연령대가 낮아졌으며, 늦은 출산 및 어린 자녀 양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30~40대 기혼 미성년 자녀수별 변화 및 막내 자녀 연령별 변화



■ 종합하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연령대로 점차 상승하는 양상³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만혼과 늦은 출산·자녀 양육은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 관리 문제, 경력 축적기와 양육기의 중첩, 고용상의 조기 퇴직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있기에 향후 생애주기 전반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15~54세 여성 고용률 변화 및 분석

1) 15~54세 여성 혼인 상태 및 자녀수별 고용률 변화

- 15~54세 여성들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 대비 여성들의 고용률은 전국 기준으로 7.0%p, 경기도 기준 7.7%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자 수의 경우 전국 기준 기혼 유자녀(성인+미성년 자녀) 집단에서 감소하였지만, 해당 인구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미혼 여성의 경우 전국 기준 8.8%p, 경기도 기준 10.5%p로 높게 상승하여 전체 여성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였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고용률도 전국 9.1%p, 경기도 8.9%p로 상승하였음. 다만, 기혼 미성년 자녀 여성의 고용률 상승은 해당 집단의 인구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노동 시장 변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도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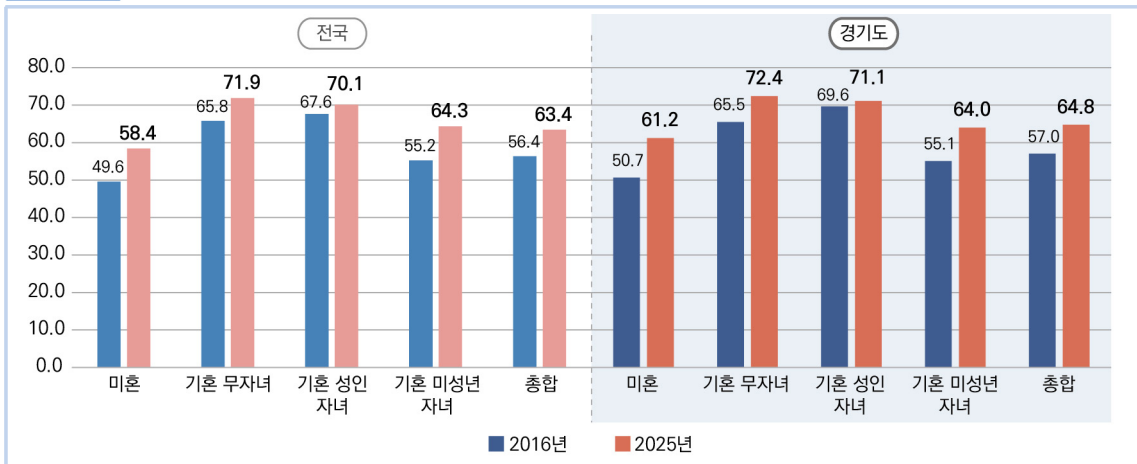
³ 50대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인구도 경기도 기준 2025년 19.2%로 2016년 대비 7.7%p 증가

표 5 15~54세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변화(증감)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전국	A. 미혼	2,656,817	49.6	3,357,435	58.4	700,617	8.8
	B-1. 기혼 무자녀	1,264,880	65.8	1,436,399	71.9	171,519	6.1
	B-2. 기혼 성인 자녀	1,461,174	67.6	879,022	70.1	-582,152	2.5
	B-3. 기혼 미성년 자녀	2,922,983	55.2	2,668,823	64.3	-254,160	9.1
	총합	8,305,854	56.4	8,341,678	63.4	35,824	7.0
경기도	A. 미혼	664,470	50.7	951,157	61.2	286,688	10.5
	B-1. 기혼 무자녀	290,737	65.5	384,761	72.4	94,025	6.9
	B-2. 기혼 성인 자녀	406,394	69.6	273,741	71.1	-132,654	1.5
	B-3. 기혼 미성년 자녀	779,552	55.1	790,096	64.0	10,544	8.9
	총합	2,141,152	57.0	2,399,755	64.8	258,603	7.7

그림 6 전국 및 경기도 여성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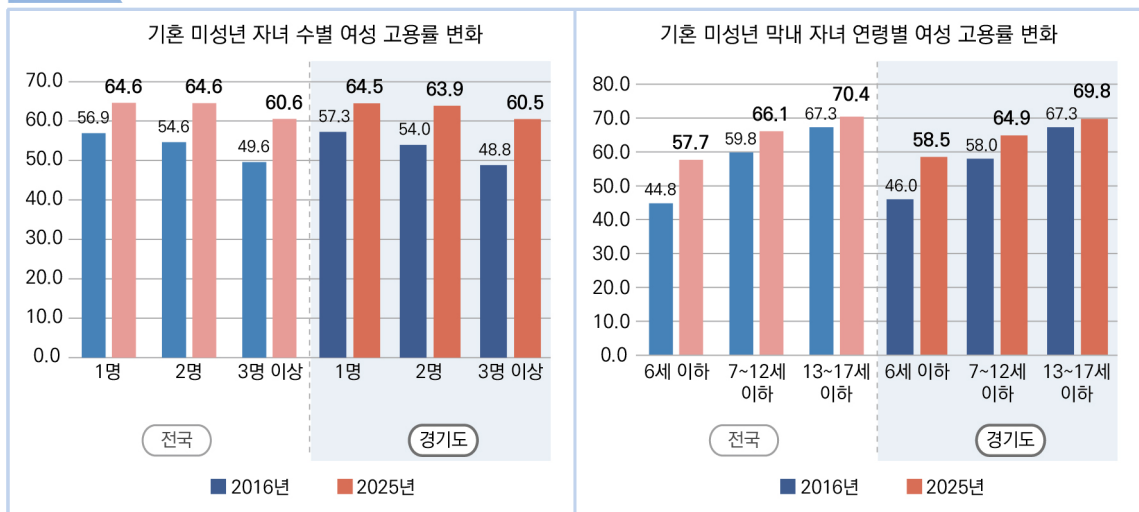
- 미성년 자녀 수 및 연령 특성에 따라 추가 분석한 결과, 전국과 경기도 모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며, 막내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16년과 2025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3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전국 11%p, 경기도 11.7%p 증가)와, 막내 자녀 연령 기준 6세 이하의 자녀(전국 12.8%p, 경기도 12.5%p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구 감소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은 적어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음. 이는 중앙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및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사업과 함께 사회적 돌봄이 확대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정리하면, 기준에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중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6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정부나 지자체의 돌봄 제도 확충 등의 노력의 결과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고용률 상승은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 즉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 인구수 감소로 인한 고용률 상승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에 노동인구 구조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함
 - 7~12세 이하(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은 해당 인구수도 증가하였고, 관련 취업자 수도 증가한 집단임. 과거 대비 해당 연령대 자녀 양육 여성 인구는 늘어나고 특히 4, 50대 여성들의 비중도 적지 않아 해당 연령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초등 방과 후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

표 6 기혼 여성의 미성년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변화(증감)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전국	미성년 자녀 수	1명	1,375,169	56.9	1,355,462	64.6	-19,707	7.7
		2명	1,325,297	54.6	1,140,989	64.6	-184,308	9.9
		3명 이상	222,517	49.6	172,371	60.6	-50,145	11.0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1,053,401	44.8	840,015	57.7	-213,386	12.8
		7~12세 이하	886,295	59.8	1,035,062	66.1	148,767	6.2
		13~17세 이하	983,287	67.3	793,746	70.4	-189,542	3.1
경기도	미성년 자녀 수	1명	372,678	57.3	411,137	64.5	38,459	7.2
		2명	351,659	54.0	331,557	63.9	-20,102	9.9
		3명 이상	55,214	48.8	47,402	60.5	-7,812	11.7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293,507	46.0	251,755	58.5	-41,752	12.5
		7~12세 이하	231,506	58.0	302,942	64.9	71,436	6.9
		13~17세 이하	254,539	67.3	235,399	69.8	-19,140	2.5

그림 7 기혼 여성의 미성년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



2) 경기도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1)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취업자 수 기준으로 전국에서는 3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2~3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음. 고용률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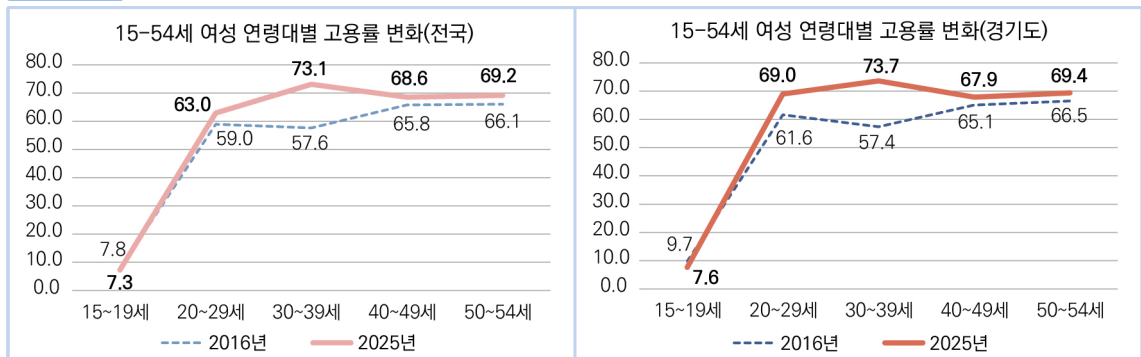
표 7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5년		변화(증감)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전국	15~19세	117,334	7.8	80,526	7.3	-36,808	-0.5
	20~29세	1,879,386	59.0	1,817,236	63.0	-62,150	4.0
	30~39세	2,128,864	57.6	2,363,834	73.1	234,971	15.5
	40~49세	2,811,672	65.8	2,582,542	68.6	-229,130	2.8
	50~54세	1,368,599	66.1	1,497,540	69.2	128,941	3.1
경기도	15~19세	36,691	9.7	23,847	7.6	-12,845	-2.1
	20~29세	477,035	61.6	531,869	69.0	54,833	7.4
	30~39세	558,731	57.4	697,525	73.7	138,794	16.2
	40~49세	732,089	65.1	731,567	67.9	-522	2.8
	50~54세	336,605	66.5	414,947	69.4	78,342	2.9

■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존 여성 고용에서 나타나던 30대를 중심으로 한 M자형 곡선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임. 특히 30대의 고용률이 15%p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 여성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40대 고용률이 30대에 비해 소폭 낮게 나타나, 기존 30대 중심의 경력단절이 40대 이후로 일부 미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40대에서도 하락 폭이 크지 않아 과거에 비해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⁴
 - 경기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국보다 높은 고용률을 나타낸 반면, 40대의 고용률은 전국 대비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15~54세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2) 연령대 * 혼인 및 자녀 수별 고용률 변화

■ 다음으로 연령대별 혼인 여부 및 자녀 유형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전국 및 경기도 모두 30대 미혼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30대 기혼 여성 중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전국 14.2%p, 경기도 14.6%p 상승)와 무자녀인 경우(전국 13.4%p, 경기도 14.1%p 상승) 고용률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됨. 단 해당 집단의 인구 수 자체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함

⁴ 추가로 취업 여성들의 과거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2016년 대비 2025년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경험 비중이 감소하였음(기혼 미성년 자녀 기준 66.4%→50.4%, 기혼 무자녀 61.8%→45.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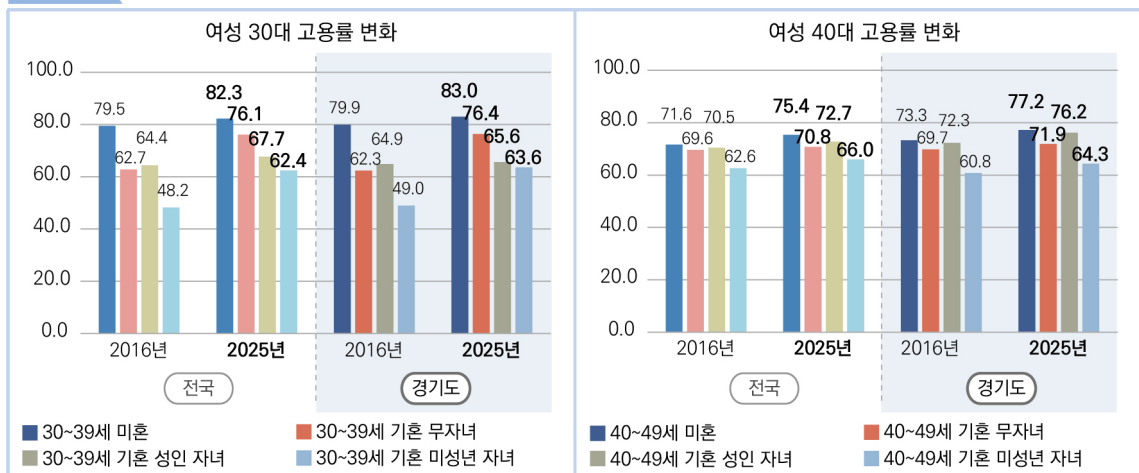
표 8 연령대별 혼인 및 자녀 여부에 따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6		2025		변화(증감)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률		
전국	30~39세	A. 미혼	672,476	79.5	1,095,559	82.3	423,083	2.8
		B-1. 기혼 무자녀	288,672	62.7	449,716	76.1	161,044	13.4
		B-2. 기혼 성인 자녀	67,105	64.4	1,687	67.7	-65,417	3.3
		B-3. 기혼 미성년 자녀	1,100,611	48.2	816,872	62.4	-283,739	14.2
		전체	2,128,864	57.6	2,363,834	73.1	234,971	15.5
	40~49세	A. 미혼	184,196	71.6	391,280	75.4	207,084	3.8
		B-1. 기혼 무자녀	426,503	69.6	405,147	70.8	-21,356	1.1
		B-2. 기혼 성인 자녀	618,884	70.5	230,585	72.7	-388,299	2.3
		B-3. 기혼 미성년 자녀	1,582,090	62.6	1,555,530	66.0	-26,560	3.3
		전체	2,811,672	65.8	2,582,542	68.6	-229,130	2.8
경기도	30~39세	A. 미혼	156,145	79.9	306,815	83.0	150,670	3.1
		B-1. 기혼 무자녀	82,090	62.3	139,036	76.4	56,946	14.1
		B-2. 기혼 성인 자녀	15,942	64.9	580	65.6	-15,363	0.8
		B-3. 기혼 미성년 자녀	304,553	49.0	251,094	63.6	-53,459	14.6
		전체	558,731	57.4	697,525	73.7	138,794	16.2
	40~49세	A. 미혼	47,977	73.3	96,202	77.2	48,224	3.9
		B-1. 기혼 무자녀	93,559	69.7	114,195	71.9	20,636	2.1
		B-2. 기혼 성인 자녀	177,890	72.3	70,252	76.2	-107,637	3.9
		B-3. 기혼 미성년 자녀	412,663	60.8	450,918	64.3	38,255	3.5
		전체	732,089	65.1	731,567	67.9	-52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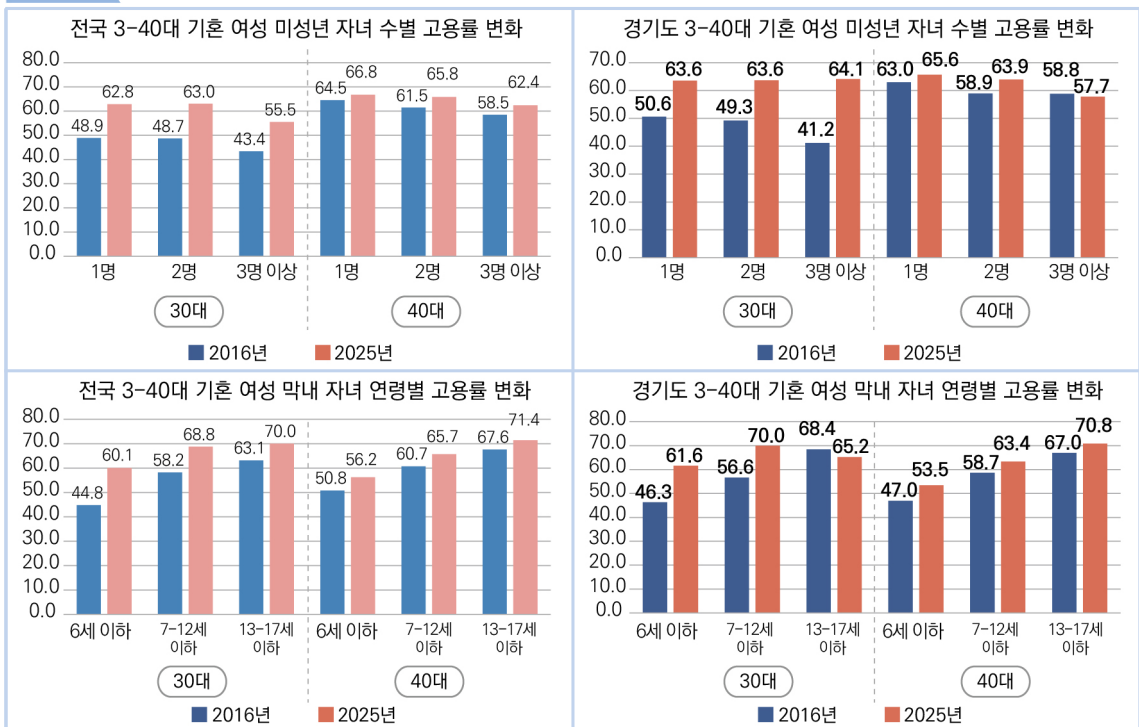
■ 결혼 및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주 연령층인 3, 40대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림 8 30~40세 여성 고용률 변화



- 특히 경기도 40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66%보다 낮은 64.3%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 비해 상승 폭도 30대 여성의 고용률 상승폭(14%p 이상)에 비해 낮은 3%p대 상승에 그치며, 고용률 상승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의 경우 앞선 분석에서 40대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였는데, 그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차원에서 40대 기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미혼이나 기혼 무자녀 여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16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즉 전반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의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30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고용률이 2016년 대비 전국 14.2%p, 경기도 14.6%p 높게 상승한 것이 특징
- 미성년 자녀 수별, 그리고 막내 자녀 연령별 고용률 차이를 30대와 40대를 주 연령층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미성년 자녀 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전반적으로 30대의 고용률이 40대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다만, 경기도에서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40대의 고용률이 2016년보다 더 낮아져,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과는 차이를 보였음
-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국과 경기도 모두 6세 이하와 7~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0대 고용률이 30대에 비해 낮았음. 40대 늦어진 출산 및 양육이 30대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새로운 경력단절 구간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또한 일반적으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기도 30대 여성 중 13~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대비 낮아졌으며, 동일한 연령대 자녀를 키우는 40대에 비해서도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전국 수치와 차이를 보였음. 즉, 경기도에서는 전국에 비해 초등 이상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림 9 3~40대 미성년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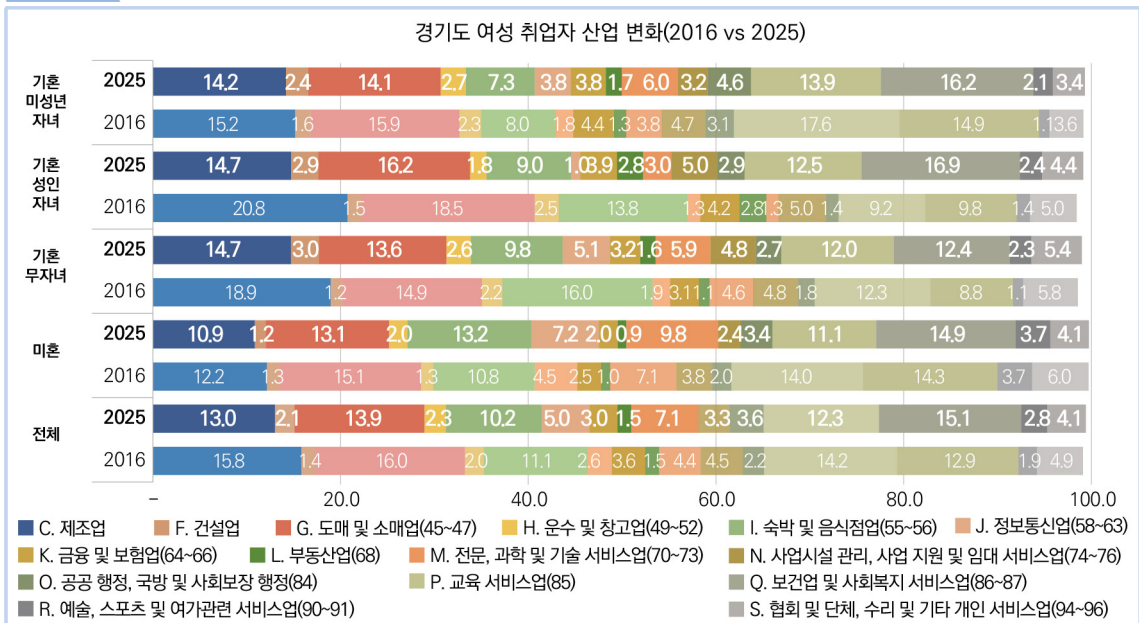


4 경기도 여성 일자리 특징 분석

1) 경기도 여성 취업자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특성

-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과 2016년 대비 2025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의 종사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음
- 먼저 산업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보건·복지업(15.1%), 도·소매업(13.9%), 제조업(13.0%) 교육서비스업(12.3%), 숙박·음식업(10.2%) 순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제조업(-2.8%p)과 도·소매업(-2.1%p) 종사자 수 및 분포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2.5%p)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p), 보건·복지업(2.2%p)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종의 분포가 다양화되고 있음
 - 혼인 상태 및 자녀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5년 기준 전체적인 분포 양상은 비슷하였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에 비해 제조업(3.3%p), 교육서비스(2.8%p)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숙박·음식업(-5.8%p), 정보통신업(-3.4%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8%p)에서의 종사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그림 10 경기도 여성 취업자 종사 산업 변화



* 종사비중 1% 미만 업종(농림어업, 광업 등)은 제외

- 직종별 분석 결과, 2016년 대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5%p증가), 사무종사자(3.9%p증가)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판매종사자(-3.3%p)를 비롯하여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3%p), 단순노무종사자(-3.3%p)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다시 말해 직업 구조의 고숙련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⁵와 산업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여성 취업자의 직종에도 고숙련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⁵ 실제 분석 대상 경기도 기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54.7%로 2016년 39.8%에 비해 14.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들의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과 기술을 요구하고 임금 수준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그림 11 경기도 여성 취업자 직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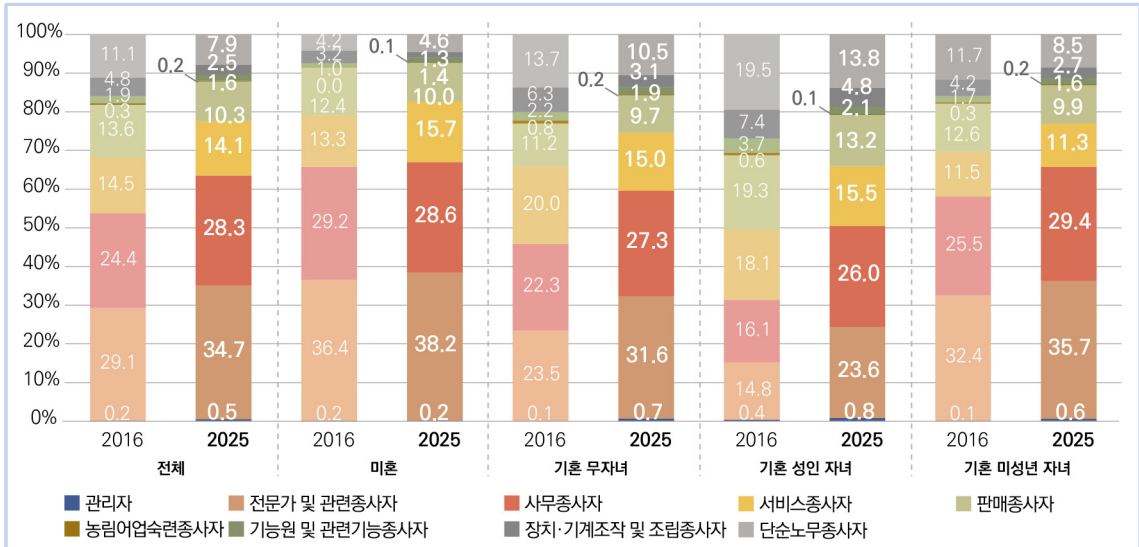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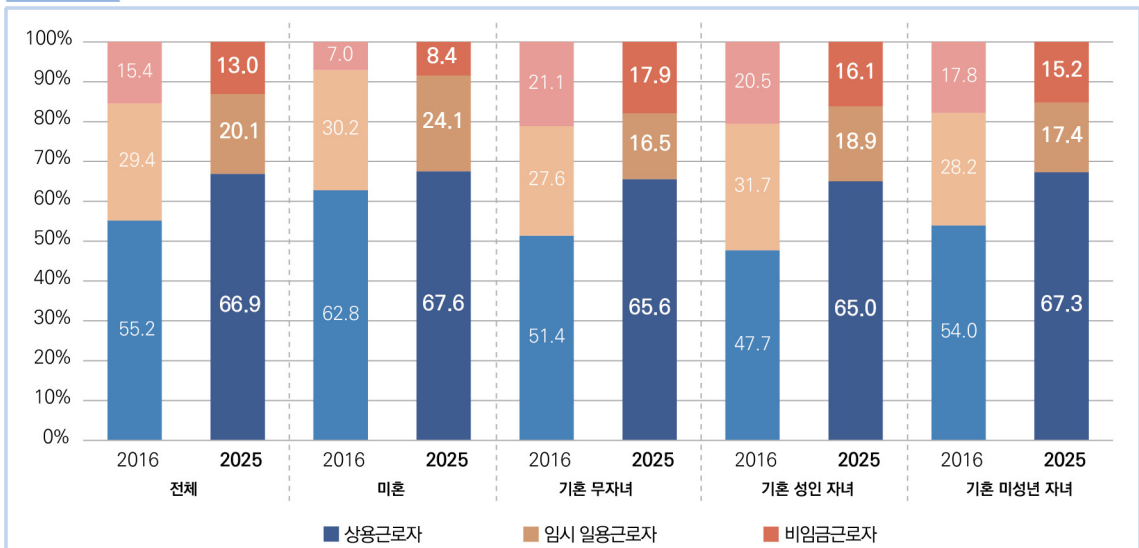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 여성 취업자 종사상 지위 변화



■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66.9%, 2016년 대비 11.7%p증가). 특히 기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67.3%로 2016년 대비 13.4%p 크게 상승하여 고용 계약이 안정화되고 고용보험 기반의 육아휴직 제도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

2) 경기도 여성 취업자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의 특징 분석

- 경기도 여성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39.1시간에서 2025년 36.6시간으로 2.5시간(-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9 경기도 여성 취업자 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			
			평균값 변화(시간)	변화비율(%)		
전체	39.1	36.6	-2.5	-6.5		
혼인 상태 및 자녀 여부	미혼	38.9	36.6	-2.3	-5.9	
	기혼 무자녀	42.2	38.9	-3.2	-7.7	
	기혼 성인 자녀	42.1	37.8	-4.4	-10.3	
	기혼 미성년 자녀	36.6	35.0	-1.6	-4.4	
미성년 자녀 특성	자녀수	1명	37.4	35.0	-2.4	-6.5
		2명	36.0	35.1	-0.9	-2.5
		3명 이상	35.1	34.4	-0.7	-2.1
	막내자녀연령	6세 이하	33.1	31.6	-1.5	-4.6
		7~12세 이하	37.7	35.8	-1.9	-5.0
		13~17세 이하	39.6	37.5	-2.1	-5.3

- 혼인 및 자녀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집단에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특히 기혼 성인 자녀 집단은 4.4시간(-10.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음. 기혼 무자녀 집단 역시 3.2시간(-7.7%) 감소하여 변화 폭이 큰 편이었으며, 2025년 기준 근로시간(38.9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반면, 기혼 미성년 자녀 집단의 감소 폭은 1.6시간(-4.4%)으로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2016년 기준 근로시간이 이미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이 확인되었음. 2025년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단의 근로시간은 34.4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나, 감소 폭은 자녀 1명 집단에서 2.4시간(-6.5%)로 가장 크게 나타남. 또한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집단의 근로시간은 31.6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경기도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확인되었음. 2016년 156.4만 원에서 2025년 248.9만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93만 원(59.2%) 증가. 이는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산업구조 재편,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혼인 및 자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25년 기준 기혼 미성년 자녀 집단의 평균 급여는 260.1만 원으로 미혼(241.9만 원)이나 기혼 성인 자녀 집단(226.8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기혼 무자녀 집단은 증가액이 103만 원(65.9%)으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낸 반면, 기혼 성인 자녀 집단은 2025년 기준 급여가 226.8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근로시간 감소뿐 아니라 연령 구조 및 고용 형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표 10 경기도 여성 취업자 월평균 급여 변화

(단위: 만 원, %)

구분		2016년	2025년	증감		
				평균값 변화(시간)	변화비율(%)	
전체		156.4	248.9	93	59.2	
혼인 상태 및 자녀 여부	미혼	161.6	241.9	80	49.7	
	기혼무자녀	156.1	259.0	103	65.9	
	기혼 성인 자녀	139.1	226.8	88	63.1	
	기혼 미성년 자녀	161.1	260.1	99	61.4	
미성년 자녀 특성	자녀수	1명	163.8	267.0	103	63.0
		2명	162.9	255.6	93	56.9
		3명 이상	131.4	231.5	100	76.2
	막내자녀연령	6세 이하	188.4	276.1	88	46.6
		7~12세 이하	150.2	248.1	98	65.2
		13~17세 이하	139.6	258.3	119	85.0

- 자녀 수 및 막내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집단의 2025년 급여가 26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음.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단은 2016년 가장 낮은 수준(131.4만 원)이었으나, 7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25년 231.5만 원으로 상승
 -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6세 이하 집단의 평균 급여가 276.1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당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또한 13~17세 집단은 증가액(119만 원)과 증가율(8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임금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경기도 여성의 근로시간과 월평균 급여 특성을 종합하면, 월평균 급여는 약 60% 상승하였으며, 근로시간 감소와 동시에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었음.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다만, 해당 여성들의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질 개선의 성과인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변화된 인구구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 최근 경기도 여성 인구구조는 미혼 여성과 기혼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비중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30대에서 미혼 여성과 기혼 무자녀 여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주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 이는 기존 여성 고용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구조가 변화하는 여성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함
- (30대)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6년 대비 15%p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여성 고용에서 나타났던 M자형 고용구조가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이는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 방향도 기존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지원" 중심에서 "경력 유지 및 경력 발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40대) 경기도의 경우 40대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인구는 증가했지만, 고용률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력단절 위험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줌. 이는 늦은 출산 증가, 초등 학령기 돌봄 부담, 경력 축적기와 양육기의 중첩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새로운 경력단절 위험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줌. 실제로 여성의 M자형 고용 곡선이 완화된 반면 고용률이 저점인 시점이 40대로 지연되는 형태가 확인되었음

- ⇒ 출산기 여성의 경력 유지형 고용지원 정책 확대,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경력단절 예방형 기업 지원 정책 강화, 출산 이후 직무 전환 및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특히 40대 양육 여성 대상 정책 강화가 필요함. 40대 여성 맞춤형 재취업 및 경력 이음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확대, 중간 관리직급 여성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
- ⇒ 또한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미혼 여성, 기혼 무자녀 여성, 늦은 출산 여성 등 다양한 생애주기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특히, 청년 여성과 기혼 무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고려한 초기 경력 안정화 정책 및 경력 지속 지원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2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자녀 연령별 지원 체계 구축,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2016년에 비해 그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아지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40대에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봄을 비롯한 자녀 양육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음
- ⇒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외에도 가사 지원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함께 육아를 실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기존 돌봄 및 보육 정책이 6세 이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7세 이상 초등 학령기, 나아가 중학교 이상의 학령기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방학 등 돌봄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지역사회 돌봄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학습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일자리 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최근 10년간 경기도 여성 취업자의 산업 및 직종 분포는 다양화되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졌으며, 근로시간 감소와 급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었음. 이는 여성 노동시장이 단순히 참여율 확대를 넘어 산업구조 재편과 고학력화 등의 영향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이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은 근로시간 구조와 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질적 고용 개선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고려하여 육아기 경력 유지 지원,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성과 일자리 질 개선을 동시에 설계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무 역량 강화, 고학력 여성 및 여성 관리자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